

# 전남 빛낸 시책 '통합 국립의대 설립' 최우수

올해의 10대 우수 시책 선정  
여수 묘도 LNG터미널 등 꼽혀  
벼멸구 농업재해·출생수당 호평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총력"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톱10이 선정됐다. 최우수 시책으로는 전남 통합대 국립 의대 설립이 꼽혔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의 시책 톱 10은 한해 동안 전남도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 35건을 대상으로 1차 내부 직원 심사와 학계, 언론인,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외부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 시책은 전남 통합대 국립 의대 설립이 선정됐다.

우수시책은 △1조4000억 원 투자 실현,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전남 K관광 닷을 올리다!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최초 건의, 끈질긴 설득, 인과 관계 입증으로 벼멸구 등 농업재해 인정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등 4건이 이름을 올렸다.

통합대 국립 의대 설립은 상생·화합·통합정신을 바탕으로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를 이끌어내며, 200만 도민

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역 공공의료 역량 역할을 할 국립 의대 설립의 단초를 만든 점 등을 인정받았다.

여수묘도 LNG허브터미널은 전남도가 정부, 공사 등 20개 참여기관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투자를 실현하고 사업착공까지 이끈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관광 세계화와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은 3년간 이어지는 로컬 관광프로그램 릴레이로 지역관광 활력을 통한 체류형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과 세계적 축제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위상을 높

일 관광프로젝트의 성공적 출발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벼멸구 등 농업재해 인정은 재해로 인정하지 않던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정부에 건의한 끝에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농업재해법 개정안을 의결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생기본수당은 인구소멸에 맞서 전남 출생아에 대해 18세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적극적인 중앙부처 협의, 도와 시·군 협력을 이끌어 준

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장려시책으로 △수도권 2시간대 철도시대 개막, 전라선 고속화 철도 △20년 도민 숙원 결실, 강진~완도고속도로 예타 통과 △우주발사체 핵심 인프라, 예타 면제 3관왕 1조725억 원 확보 △세계 김시장 선정을 위한 김 양식장 확대 △화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투자단지 지정 등이 선정됐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민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우수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 전남도, 남도미식산업박람회 성공개최 모색

미식·마케팅·문화관광·학계 등 자문

전남도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열어 미식, 마케팅, 문화관광,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박람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글로벌 미식도시 전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식과 유관 산업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 국제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개최된다.

자문위원회에선 자문위원과 총감독,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기본계획과 세부 콘텐츠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자문위원인 김태희 한국미식관광협회장은 "관광의 핵심 콘텐츠가 미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음식과 관련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는 게 매력 포인트"라며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경제와 관광, 미식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케이팝, 케이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케이푸드로 확산됐고, 남도음식은 케이-미식을 대표할만한 경쟁력이 있다"며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미식과 다양한 산업을 융합하는 점에서 그동안의 박람회와 차별화되는 행사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목포 일원에서 세계의 미식관, 음식 관련 융복합 산업관, 미식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원각사 6월민주항쟁기념비 건립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1일 광주 동구 중앙로에서 양

부남·정준호·정진욱·안도걸 국회의원, 원각사 현고 스님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각사 6월민주항쟁기념비 건립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원각사 6월민주항쟁기념비 건립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며, 건립비용은 모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도 제공**

## 광주관광공사, MICE 매출 100억 '역대 최대'

'DJ센터-관광재단' 통합 효과  
마이스·관광 연결 통합플랫폼

지난해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공사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광주관광공사가 올해 시설 대관과 다양한 전시·이벤트 개최를 통해 MICE 사업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22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으로 새롭게 탄생한 광주관광공사는 '광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마이스 통합플랫폼'이라는 신경영 비전을 중심으로 마이스 사업의 수익성 강화에 집중했다.

이에 출범후 올해 목표를 90억원으로 잡았으나 이를 12.2% 초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시·이벤트 사업이 32억4000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관 사업이 68억6000만원이다.

주요 매출 증가 요인으로는 △주관 전시회의 수익성 강화 △비수기 전시장 이벤트 개최 활성화 △학회 등 컨벤션 행사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관광공사는 올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총 117건의 전시·이벤트와 컨벤션 부문 1331건 등 총 1448건의 행사(연말 행사 포함)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225건 대비 28.7%가 증가한 것으로 '임영웅 콘서트'와 'KIA 타이거즈 팬 페스트'와 같은 대형 이벤트를 비수기 기간에 유치하거나 대형 학회와 함께 기업회의를 100여건 이상 증가 유치한 결과다.

특히, 전시 사업은 축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했다.

올 가을 광주축제이벤트 통합 브랜드인 'G-FESTA'를 추진하면서 '광주ACE-FAIR', '광주식품대전' 등 주요 주관 전시회가 축제 행사와 결합해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광주관광공사는 국비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공공분야예산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전시회 지원사업에 6건을 지원했으며, 역대 최대인 5건의 전시회가 선정돼 2억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

또 광주관광공사를 벗어나 광주전체로 효과를 확대해 보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MICE 개최 및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총 13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숙박, 관광, 교통, 음식 등 지역 MICE 연관 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통합예약플랫폼 '바로예약' 이용자 급증

올해 8만7천여명...전년비 3배 ↑  
맞춤예약 등 편의증진·홍보 특목

광주시 통합예약플랫폼 '바로예약'이 올 한해 동안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역 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홍보 역할을 특목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시설 대관을 통합해 예약할 수 있는 '바로예약' 이용자 수가 올해 11월까지 8만7214명으로, 지난해(2만6133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20년 구축된 '바로예약'은 예약·접수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불편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 2022년 예약 서비스 확대와 검색 서비스 강화 등 고도화를 거쳐 현재의 통합예약플랫폼으로 완성됐다.

광주시는 연령·성별·지역별·개인별 관심 정보 등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는 '맞춤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기존의 예약방식인 전화 접수, 방문 예약, 시설별 개별 사이트 이용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한 것은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홍보 역할도 하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바로예약 누리집 방문자 수는 2022년 9만9993명에서 올해(1~11월) 14만5118명으로 증가하는 등 인지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바로예약'은 △교육·강좌 △견학·체험 △시설대관 △문화·행사 △공모전 등 5개로 분류돼 있다.

교육·강좌는 농업동물정책과, 문화도시조성과, 광주김치타운, 역사민속박물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다.

견학·체험은 농업기술센터,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신창동마한유적체험관 등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 안전체험, 유아체험 등을 예약할 수 있다.

문화·행사는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인 '디어 마이 광주'와 연동돼 해당 누리집에서 다양한 공연, 전시 등을 예약할 수 있다.

특히 12월부터 북구 월출동 '광주 시민의숲 야영장' 예약을 추가해 가족단위 캠핑족들의 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광석 대변인은 "기존에는 각 행사 예약이나 시설 대관을 위해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통합예약플랫폼으로 주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바로예약'은 광주시 누리집 '온라인예약신청' 메뉴를 통해 접근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하면 할인"

전자우편·모바일앱으로 고지

광주시는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받는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

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우편물 분실 염려나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종이고지서 감축으로 행정 비용과 자원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

전자송달 서비스는 납세자가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토스·페이코), 카드사·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지방세 정기본 세목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이 할인되고 자동납부까지 신청할 경우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병하 기자**